

빈, 기후변화 대응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표

<https://www.wien.gv.at/presse/2020/04/27/gaal-kraus-reform-der-bauordnung-bringt-mehr-digitalisierung-und-klimaschutz-und-macht-wien-zukunftsfit>

<https://www.wien.gv.at/presse/2020/05/06/ranking-oeffis-wien-gruenste-stadt>

<https://www.wien.gv.at/presse/2020/05/22/klimamusterstadt-wien-wohnbaustadtraetin-gaal-und-umweltstadtraetin-sima-praesentieren-erste-fassadenbegruenung-an-gemeindebau>

오스트리아 빈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Katherin Gaal 하원의원과 Peter Kraus 녹색계획 대변인은 태양광 발전 의무화를 골자로 하여 화석연료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태양광 에너지를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거용 및 교육용 건물을 포함한 신축 건물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며, 특히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생산된 전기를 가정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이제까지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 설치 의무를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체 지역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한다.

태양광 발전 의무화 외에도 건축허가신청 등 건축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기후보호 및 에너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The world's 10 Greenest Cities 2020'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운송수단을 통해 연간 CO₂ 배출량을 1,500kg가량 절감하며 1인당 CO₂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도시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거대한 녹지대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에서 활용 가능한 수직녹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2023년까지 총 625만 유로(약 84억 6,0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꼽힌 빈

출처: 빈시 홈페이지, <https://www.wien.gv.at/presse/2020/05/06/ranking-oeffis-wien-gruenste-stadt>(검색일: 2020.6.10.)